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의 조기 및 지연관동맥중재술의 합병증 비교

성균관대의 순환기내과 남궁준*, 권현철, 이상훈, 홍경표, 박정희, 서정돈

목적: TIM 연구에서 조기 관동맥 풍선확장술이 지연 관동맥 풍선확장술보다 합병증이 높음이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스텐트 삽입술이 보편화되면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조기중재술의 경향이 높다. 본 연구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및 지연 관동맥 중재술(스텐트 삽입술)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흉통발생 후 72시간을 기준으로 조기시술군과 지연시술군으로 나누어 시술 시 합병증과 병원입원 중 이환율과 사망률, 그리고 6개월 후의 심사건율을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결과: 총 555명중 조기시술군은 117명, 지연시술군은 315명이었고, 일차적 관동맥중재술군은 123명이었다. 평균연령은 59±11세였다. 두 군간 성별, 연령별 그리고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등의 위험인자분포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Early(%)	Delayed(%)	P-value
Procedural complication	Side branch occlusion	5(4.3)	9(2.9)	0.52
	Major dissection (≥Type C)	1(0.9)	13(4.1)	
	Distal embolization	3(2.6)	7(2.2)	
	Slow flow or no-reflow	12(10.2)	20(6.3)	
In-hospital mortality	Heart failure	1(0.9)	5(1.6)	0.71
	Cardiogenic shock	3(2.6)	6(1.9)	
	Cardiac tamponade	0(0)	2(2.6)	
	CVA	1(0.9)	0(0)	
	Death	1(0.9)	3(0.9)	
6-month MACE	Heart failure	2(1.7)	7(2.2)	0.71
	Recurrent ischemia	4(3.4)	6(1.9)	
	Target lesion revascularization	9(7.7)	22(7.0)	
	CABG	1(0.9)	5(1.6)	
	Death	2(1.7)	4(1.3)	

결론: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조기 관동맥중재술에 따른 합병증과 입원 중 이환율, 그리고 6개월 후의 심사건율은 과거의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스텐트 삽입술의 보편화와 약물치료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재관류 치료를 시행한 환자에서 내원시 백혈구 수치와 심근 손상의 관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 내과학교실

한정호*, 홍의실, 채지영, 김기석, 연태진, 김동운, 조명찬

배경 :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내원 당시의 백혈구증가증이 심근 손상의 정도와 연관이 있으며, 부정적인 예후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내원 당시의 백혈구증가증이 단순히 심한 심근손상에 동반되는 변화인지, 혹은 심근손상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지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본 연구는 급성심근경색 후 재관류치료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백혈구증가증과 심근손상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급성심근경색으로 충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재관류치료를 받은 환자 중 관동맥조영술을 시행한 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하여, 응급경피적중재술(n=31)과 혈전용해술(n=59)을 시행한 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상 환자의 응급실 내원 당시의 백혈구수치, 내원시 Creatinine Kinase(CK)와 CK-MB수치, 입원기간 중 CK 및 CK-MB 최고치까지 치, 증상부터 응급실 내원까지 걸린 시간, 재관류 치료 후 CK 및 CK-MB 최고치까지의 시간, 심전도에서의 경색부위, 관동맥조영술에서의 경색관련혈관 부위와 개존성 여부 및 협착혈관의 개수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 양군에서 모두 내원시 백혈구 수와 내원시 심근간, 재관류 치료 후 심근 효소의 최고치까지의 시간, 경색관련혈관 부위 및 협착혈관의 개수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혈전용해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r=0.35, p<0.01, r=0.32, p<0.05)를 보였다. 결론 : 급성심근경색 후 내원시 백혈구 수와 내원 당시의 심근 손상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원시 백혈구 수는 혈전용해술 후의 심근 손상의 정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심근경색 환자에서 내원 당시의 백혈구 증가는 혈전용해술을 통한 재관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